

빙판 육교... 보행자들 '아찔'

광주 70곳, 폭설에도 제설작업 안해 낙상사고 잇따라

지난 9일부터 광주지역에 지속적 으로 눈이 내리고 있으나 도심 육교 의 제설(除雪)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아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보행자들은 육교를 건너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 는 등 낙상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 시내 높이 4.5m 이상 육교 10곳에 대한 제 설작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설작 업이 제대로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날 현재 이 지역에 설치된 육교(구름다리 제외)는 ▲동구 8곳 ▲서구 17곳 ▲남구 8곳 ▲북구 20곳 ▲광산구 17곳 등 모두 70곳이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조선평동 정문 앞과 동구 산수동 산수 오거리에 설 치된 육교에는 오르는 계단을 포함한 철재 보행로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계단엔 길이 15cm의 미끄럼 방지 철재가 부착돼 있었으나 눈에 덮여 무용지물이었다.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인근 도 로와 북구 각화동 삼성 홈플러스 앞 에 설치된 육교는 빙판길로 변해 있 었다.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과 남구 백운동 까치고개 육교도 눈 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번잡한 도로의 주 보행로인 육교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서 보행자들은 무단횡단 또는 인근 건물목을 찾아 우회하고 있다.

특히 보행로가 미끄러운 육교를 이 용하다 빙판길에 넘어질 경우 추락사 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제설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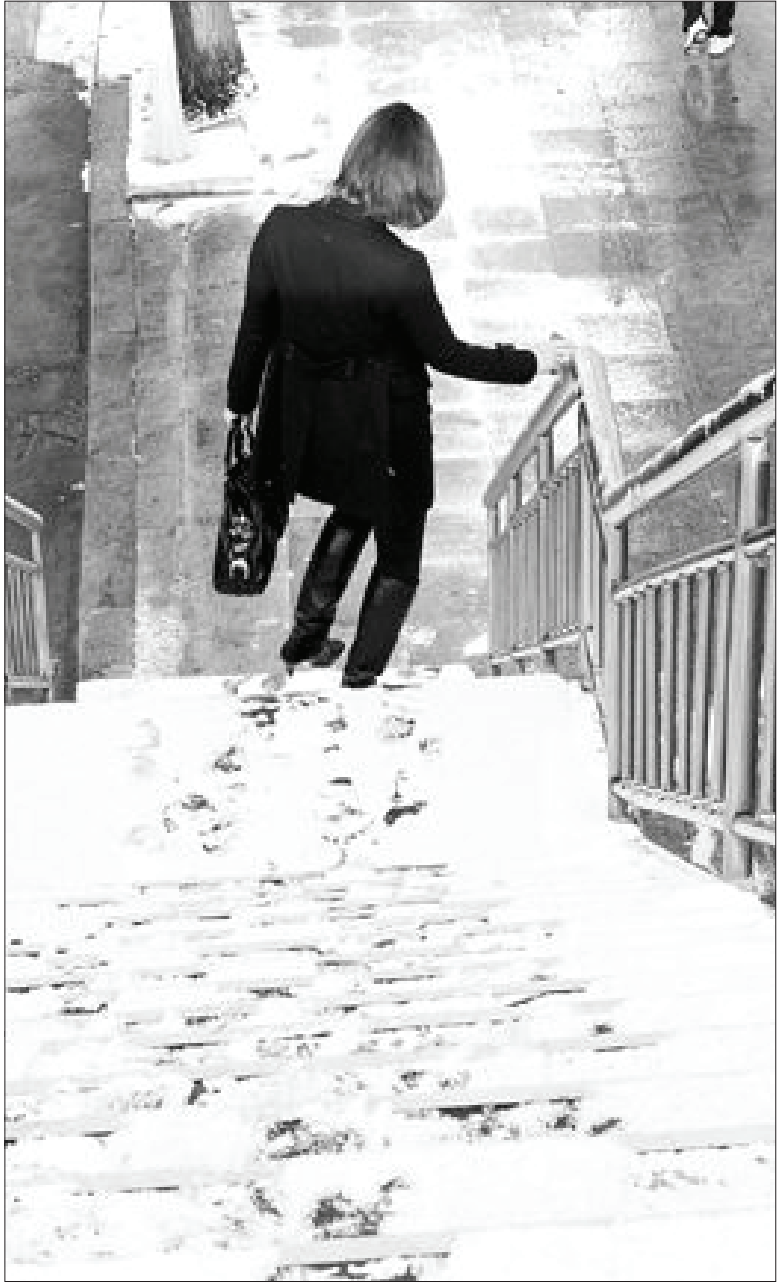
낙상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 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인근 육교를 건 너던 김모(38)씨가 빙판길에 미끄러 지면서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 또 남 구 백운동 까치고개 인근 도로 육교 를 횡단하던 이모(32)씨도 눈길에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고양에 오랜만에 내려왔

다가 보행이 당할 뻔했다. 이 곳에서 만 보행자 3명이 넘어지는 것을 봤 다"며 "눈이 녹아 물이 고여 있는 곳 일지라도 영하의 추위 속에 아침·저 녁으로 철재바닥이 빙판으로 변할 가 능성이 커 매우 위험하다. 육교에 대 한 제설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지 적했다.

광주시 도 구청 관계자는 "최근 육 교 제설작업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 이 많다"면서 "현재 주요 도로를 중 심으로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주 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육교에 대해서 도 제설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조심조심” 14일 광주시 동구 전남여고 인근 육교. 한 여성이 눈 덮인 육교의 난간을 붙잡고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니원침 (7704) 김중두



삼한사온(三寒四溫) 실종?

광주·전남 옛새재 폭설...기온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지난 9일 시작된 한파가 1주일째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대표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 현상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사실상 눈은 그쳤지만, 15일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가 영하 8도, 전남이 영하 11

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를 이삼일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광주지역의 최저기온은 지난 9일 이후 영하 2.8~5.3도까지 떨어지며 계속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기상청은 이처럼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추위가 길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삼한사온이 아예 사라진 이상기온 현상은 아니라는 견해지만, 일부에선 기압계 변화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옛새재 많은 눈이 내렸지만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방재당국과 농민들의 우려

와 달리 현재까지 신고된 폭설 피해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밝혔다. 눈이 오랫동안 내리긴 했지만, 적설량이 분산되고 낮 동안 쌓인 눈의 일부가 녹아내려 시설하우스나 축사 등에 피해를 줄 정도의 ‘과괴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역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단축운행과 전남지역 고갯길 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단축운행 노선은 ‘1187번’(충장사~원효사), ‘187번’(충장사~원효사), ‘87번’(충장사~원효사) 구간이다. 전남지역에선 구례 성삼재와 곡성 신흥재·단사재, 진도 향동재 등 고갯길 4곳이 통제중이다. /김희호기자 khh@

‘좌천’ 검사장들 줄사표 추가 승진 인사 곧 단행

지난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된 검사장들이 속속 사표를 내 조만간 추가 승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영관(57) 제주지검장이 전남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낸 데 이어 광주 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조한욱(53)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25년여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렵니다”라는 짧은 사직인사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사퇴는 전남 인사에서 하급기관 차장검사로 내려앉은 데

다 동기(사시 23회)인 박영렬(53) 서울 남부지검장이 삼급자인 광주지검장으로 발령되는 등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했을 때 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안 출신인 박영관 지검장도 사시 동기(23회)인 안창호 대전지검장 밑에서 일하게 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오직 이기용되지 못한 사시 22~23회 출신 1~2명이 추가로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검사장 승진자는 예년 수준인 9~10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법원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20대 친고죄(강간미수)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언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 잡았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K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기각해야 했지만 1심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 스스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자인한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착오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은 간혹이나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K씨는 지난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9월 1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에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

전남도청 간부 특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춘천 도시형 페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 입찰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대가로 특정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남도청 과장 정모(59)씨와 연구원 김모(50)씨, 대학교수 전모(54)씨 등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께 도시형 페기물종합처리시설 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입찰에 참여한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심사 평가회의 참여 과정에서 숙박과 교통 편의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청 소속인 정씨가 춘천의 페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에 포함된 것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 또 다른 심사 평가위원도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입찰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금품을 받은 등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조사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뽕소니” 거짓말 했다가 절도 들롱

○흠친 오토바이 타고 놀다가 친 10대들이 부모에게 “뽕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절도 사실이 발각돼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청은 14일 아파트 빈집에서 금품 등을 훔친 A(16)군 등 6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검거.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달 3일 오후 4시께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B(49)씨의 집에 침입해 1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

○이들은 며칠 전 훔친 오토바이 2대를 타고 놀다 다치자 부모에게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에 뽕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한 부모로부터 뽕소니 사고 점수를 받은 뒤 수사를 벌이다 범행 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검거.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다 좋은 건국·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사물번호: 020 3445-0943

나주공방: 061 337-0571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주요항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낙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를 환영합니다. 1일 안라산 등반 + 1일 관광도 가능합니다. (₩ 99,000원) 방림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 - 호델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 호델박 - 3일째: 제주관광 - 제주항(17:30) 출발 (단, 일요일은 16:30 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 토요일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 성수기 기간 2만원 추가

고흥(낙동)출발 "낙동투어" 85,000원

★ 일정 - 1일째: 낙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 - 호델 1박 -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 호델 1박 - 3일째: 제주관광 - 제주항(17:10) 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 금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 성수기 기간 2만원 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목카퀀트카투어" 103,000원 (4인 기준)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14:30) 출발 - 제주항 도착 - 호델 1박 - 2일째: 자유관광 - 호델 1박 - 3일째: 자유관광 - 제주항(17:30) 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866-8446

▶ 근린사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나주남동	290/69	5947000	398000	신도시/7각형
오차동	48/51	1991100	9030	신도시/사무실/신도시
공동	48/216	8935000	498000	행정타운/사무실/신도시
수기동	50/103	4926000	298000	신도시/사무실/신도시
신안동	110/257	6981000	398000	신도시/사무실/신도시
일산동	362/988	41940000	2192000	신도시/사무실/신도시
지석동	151/213	5954000	3954000	신도시/사무실/신도시
금호동	104/234	7981000	3927800	신도시/사무실

▶ 주택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55/39	883000	44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백운동	114/28	2998700	1998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누문동	54/33	1926800	71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오차동	112/45	2923800	1998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나주내동	312/88	294000	1942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북도곡동	196/156	3971000	298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운양동	41/58	1950000	67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백운동	52/51	1924800	8842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해운동	200/44	884200	49522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해운동	207/52	64800	4533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황룡동	38/39	97900	686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백운동	89/35	88200	618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해운동	44/38	81500	571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 아파트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금호동	중형/원리스	11층	34	195700	199900
백운동	신도시/사리	5층	54	197500	1922500
일곡동	청솔2차	14층	20	53000	37100
미곡동	화랑1차	1층	34	197200	96320
유선동	버들연못2차	7층	33	192500	87500
주월동	신도시/사리	2층	32	194000	77000
금호동	노기동	14층	32	192500	84000
중앙동	부영2차	14층	32	192500	87500
금호동	노기동	2층	21	65000	45500
주월동	화랑1차	3층	38	294000	1998000

▶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나주중앙리수원	2600	8916000	4940400	연사무실/신도시	
평산동	담	731	36200	20300	신도시/신도시
백운동	전	553	14600	117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담	1058	45500	364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담	887	20600	144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담	837	42120	285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담	500	29700	208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담	1033	1915430	808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담	848	42000	2943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담	748	22300	15800	신도시/신도시

▶ 다세대

소재지	평형	감평가	최저가	비고
평산동	67.1	1990000	89600	다세대/1.1층
평산동	15	40000	28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평산동	18	40000	28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평산동	20.4	28000	196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평산동	25.8	1936000	756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평산동	44.9	2억	1942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평산동	13.1	24000	168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 다가구(월동)/숙박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신기동	90/120	2998000	2998000	18기/구/3층
평산동	63/105	3922000	2922000	12기/구/3층
지석동	85/117	3925300	2927700	18기/구/3층
해운동	82/133	4285400	3947000	18기/구/3층
유안동	128/314	7920000	5941500	4층/상가/도넛

▶ 오피스텔

소재지	평형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석동	24	1950000	67200	그린2/9층
지석동	9	43000	193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해운동	13.7	86000	386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지석동	11.6	75000	42000	신도시/신도시/신도시

▶ 분양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해운동	1440/216	4948000	2억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1989/659	1496000	89210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1565/689	23921000	13억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1292/706	12924000	5948300	신도시/신도시
평산동	503/412	9988000	6977600	신도시/신도시